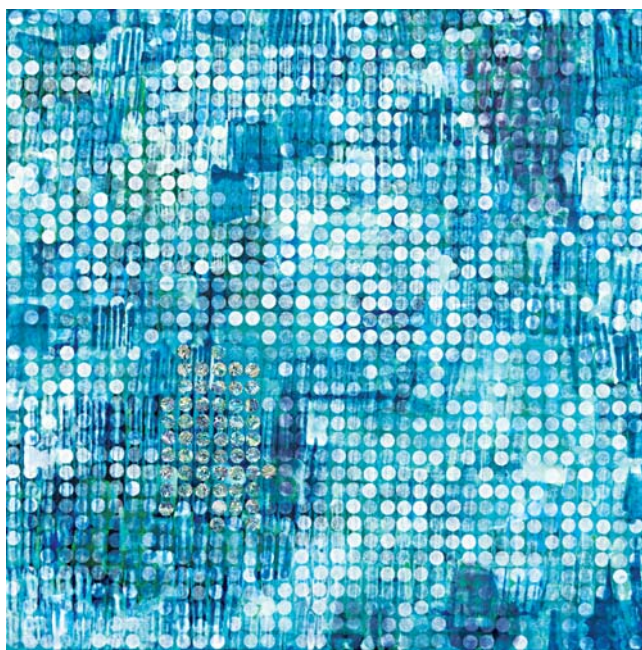


'살이 흘러갈수록'



'메타세콰이어 길에서..'

자연의 품에서 쌓고 담고 거닐다

정명숙 작가 개인전, 18일부터 소촌아트팩토리 한지로 오린 동그라미들, 너른 자연 품으로 확장

'積(쌓을 적)'이라는 의미가 품은 다채로운 세계를 추구해오던 분주 정명숙 작가의 개인전이 소촌아트팩토리에서 열린다.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자연과 심상의 이미지를 재해석해 단순화한 화면으로 표현한 한국화 작품 30여 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그동안 꾸준히 추구해온 '積'이라는 주제로 한지로 오린 동그라미들을 붙이고 쌓아올리는 입체적이고도 독자적

인 표현세계를 구축해 왔다.

한지로 오린 작은 동그라미를 붙이기도 하고 자게나 인물형상의 모형에 화려한 스펙클 등을 붙이기도 하는 등 관람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 온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일상과 함께 너른 자연의 품을 담아냈다.

'積-담고 거닐다'라는 타이틀로, 최근 1년여 간 작가의 변화된 일상들을 엿볼 수 있다.

작가는 지난해 화순농주면 인랑동길에 새로이 작업실 동지를 틀었다. 직접 집을 짓고 집에서 작업실까지 40여분 남짓 걸리는 길을 하루도 빠짐없이 오가며 자연의 선물을 눈뜨게 된 것.

봄이 된 작업실 주변은 그야말로 자연의 축제였고 일부러 꽃을 보러 찾아가지 않아도 복숭아꽃, 개나리꽃, 메타세콰이어의 푸른 가지와 이름 모를 들꽃까지 어우러져 변화해가는 모습들이 온전히 눈에 들어왔다.

도심에서 보이지 않는 색채, 소리없이 제 몫을 다하는 자연의 모습들을 보며 작가는 일상과 자연을 재발견하게 된다.

자연의 색들은 그대로 화폭에 담겼고,

그 위로 무수한 작은 동그라미들이 자리했다.

작가는 "그림과 마주한 모든 이들과 함께 자연의 품 안에서 고요하게 거닐 수 있기를 바란다"며 "봄 내내 작업실에서 쏟은 열정의 시간들이 많은 이들에게는 섬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조선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으며, 담양 대담미술관 레지던시 보고전과 전남여성플라자 등 광주와 전남에서 10여 회 개인전, 다수의 기획 초대전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선과 광주시전 대상 등을 다수 수상했으며 선목회, 에포크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연수 기자

영화는 미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내일 한창호 영화평론가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이나 작품을 만나면 그림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욕망을 느끼게 될 때가 있다. 보통 사람들은 감탄에 그치겠지만, 유명 영화감독들은 그림 속 이미지를 영화적 상상력으로 끌어와 우리를 감동의 세계로 이끈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술관 아카데미 6월 강좌에서는 한창호 영화평론가를 초청, 영화와 미술의 다양한 만남을 보여주는 강의 '영화와 미술-영화는 미술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를 마련한다. 18일 오후 3시 광주시립미술관 대강당.



한창호 영화평론가는 이번 강좌에서 영화와 미술을 주제로 영화를 분석하고 영화의 장면들이 담고 있는 특별한 이미지에 시선을 집중하면서 영화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미술의 세계를 교차해서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화가가 그림을 그리듯 영화감독들이 스크린 위에 펼쳐 보이는 영화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시간을 선사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미술의 역사가 깊고 또 영화의 역사도 만만치 않은 유럽의 영화들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영화들에서 그런 흔적들을 자주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이탈리아 볼로냐대학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로 '영화, 그림 속을 걷고 싶다' '영화, 미술의 언어를 꿈꾸다' 등이 있다.

한창호 영화평론가는 "영화는 곳곳에서 미술의 아이디어를 가져오고 있는데 수강료는 무료. 문의 062-613-7132. /이연수 기자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공연 모습.

연기와 춤 어우러진 '음악, 너는 나의 친구!'

시립소년소녀합창단 22일 정기연주회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예술감독 윤영문)은 오는 22일 오후 7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제129회 정기연주회 '음악, 너는 나의 친구!'를 개최한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합창, 연기, 춤 등이 어우러진 합창음악극으로, 무대, 대사 춤 등 연극적 요소를 가미했다.

싱그러운 초여름, 숲속으로 음악 캠프를 떠나는 합창단원들은 음악에 대한 꿈과 희망을 노래한다.

단원들은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 등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에 관심을 갖는 아이들이 되어 음악이아말로 큰 힘이

돼주고 의지할 수 있는 소중한 친구라는 걸 깨닫게 된다.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까지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44명의 협력단원들이 출연해 '밝게 빛나는 노래', '노래같이 좋은 것은 없네', 'I Believe',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등 총 11곡을 연기와 춤을 곁들여 재기발랄한 끼와 재능을 펼쳐 보일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운영문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예술감독이 지휘하고, 원광연 한국연극협회 광주지회장이 대본 및 연출을 맡았다. 티켓은 전석 1만원. /이보람 기자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빛났다

아시아문화원, '국가지속가능발전 동반성장상' 수상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이 한국언론인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한 제13회 국가지속가능경영대회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 동반성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서 아시아문화원은 문화예술부문 콘텐츠 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동반성장을 위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함께 마련한 플랫폼인 '아시아컬처마켓'의 운영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시아컬처마켓(이하 ACM)은 정부

의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정책이 따라 콘텐츠 산업의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콘텐츠 분야 문화예술인 및 관련 산업의 지속가능한 창조경제와 함께 소득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ACM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ACM 문화마켓'은 광주지역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인 '플리마켓'와의 협력을 통해 2016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열린 ACM 파트너스 데이.

판로 및 고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1인 기업 등 판매자들은 ACM 문화마켓 참여로 지속적인 매출 창출의 기회를 확

보하고 있다. 문화전당 역시 마켓을 중심으로 젊은 층이 유입돼 공간 활성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총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 jndn@chol.com 관리국 : jsm7139@nate.com 월간국 :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 peace20090818@hanmail.net